

고흥군, 건강한 노인일자리 만들기 온힘

혹서기 노인일자리 참여자
25개 사업단 4356명 대상
안전 소양 관련 교육 강화
“안전한 일자리 만들 것”

여름철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고흥군이 건강하고 안전한 노인일자리
만들기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8일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시니어클럽,
고흥군 노인복지관, 고흥군 노인회지회
등 고흥군 산하 노인 일자리사업 3개 민
간 수행기관에서 각 사업에 참여 중인 어
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혹서기 대
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폭염으로 인한 건강 문제
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어르신들
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안전 수칙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내용에는 △폭
염시 건강 관리법 △충분한 수분 섭취의
중요성 △열사병과 탈진의 증상 및 응급
대처법 등이 포함됐다.

고흥군은 또 혹서기에는 야외에서 진
행되는 공익형 일자리사업(아름다운 마
을만들기, 아름다운 정류소 만들기 등)
참여 어르신들의 활동시간을 기존보다 1
시간 앞당겨 실시해 폭염이 절정에 이르
는 낮시간을 피하고, 더 시원한 시간대에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은 오
전 8시부터 근무를 시작해 이른 시간에
일과를 마치게 된다.

특히 이 기간에는 활동시간 중에 폭염
주의보가 발령되면 야외활동을 즉각 중
단하고 실내(경로당 등) 또는 정자각 등
그늘로 이동해 안전교육·주의사항을 전
달하도록 했다.

지난 5일 각 교육 장소를 일일이 방문
해 어르신들을 격려한 강춘자 주민복지
과장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
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혹서기 동안에
도 어르신들의 소득지원을 위한 노인일
자리사업이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말



고흥군이 여름철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했다.

이번 안전교육을 통해 노인일자리 참
여자들은 폭염 속에서는 안전하게 근무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으며, 앞으로도 정
기적인 교육과 관리로 안전한 작업 환경
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재 고흥군 노인일자리사업은
158억원을 투입해 25개 사업단에 4356
명이 참여 중이며, 고흥시니어클럽, 고흥
군노인복지관, 고흥군 노인회지회 3개
수행기관에 위탁해 운영되고 있다.

송민섭 기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평가
보성군, 우수 지자체 선정

보성군은 지난 5일 지방자치단체 건강
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2024년 지역사
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평가 우수 지
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부문 평가는 2023년 통합건
강증진사업 추진 결과와 우수사례에 대
한 시도별 평가 결과를 반영해 보건복지
부가 전국 최우수 16개 기관과 우수 18개
기관을 선정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역사
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 관
리를 목적으로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을
기획·추진하는 사업이다.

보성군은 지역 현황과 건강 수준을 자
세히 분석하고 내외부 자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해
군민의 건강증진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
을 향상시킨 점과 비만 예방 관리 사업 우
수사례가 높게 평가받았다.

김학성 보건소장은 “지역주민이 체감
할 수 있는 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주민
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책임질 수 있
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
다.

송민섭 기자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장흥군 장평농공단지

장흥군은 8일 ‘장평농공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장평농공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
리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3.8억원(국
비 9.6, 도비 1.2, 군비 3)이 투입됐다.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장평농공단지 근로자 및 인근 주민
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진출입로
개선과 농공단지 내 수목이식 작업 등
0.8km 보행로를 정비하고, 쉼터 조성,
산책길 및 체육시설 조성 등 8500㎡ 규모
의 공원을 완성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앞으로도 장흥군의
경제산업 발전 및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
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
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여수시, 시민공청회 열어
지속가능발전 중장기 전략 수립

여수시가 지난 4일 시청 회의실에서
‘지속가능발전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17일 1차에 이
은 두 번째로,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
한 기본전략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에 지
속가능발전협의체와 시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코자 마련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국가산단과 관광산
업의 발전 방향 △탄소중립을 통한 환경
과의 공존 △살고 싶은 여수시를 만드는
정주환경 개선 등 여수 미래를 위한 다양
한 생각들을 논의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수시는 나비반
도를 둘러싼 5개 만을 중심으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도시”라며 “이러한 잠
재력을 바탕으로 환경에서부터 경제, 사
회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여수시를 만
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2022년 제정된 지속가
능발전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 법정
계획인 ‘여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오
는 10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순천시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온열질환에 대한 예방법 등 혹서기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 폭염 취약계층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강화

“폭염피해 최소화 노력할 것”

순천시는 폭염 온열질환에 쉽게 노출
될 수 있는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돌
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무더위 쉼터 역할을 하는 경로당에는
냉방비 지원단가를 월 16만5000원에서
17만5000원으로 월 1만원 추가 지원한
다. 에어컨 고장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
진하고 수리를 완료했다.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온열질환에 대한 예방법 등
혹서기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혹서기인
7~8월에는 노인일자리 활동시간을 단축
하고 실외 활동을 최소화하는 등 안전사
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노인맞춤돌봄대상자에게 돌봄대상 가
정 내 에어컨 및 선풍기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진행했다. 토시, 마스크, 넥쿨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169개소에는 상시 냉방상태
유지를 위해 지난 5월 냉방비를 아동 현

원별 48만원부터 최대 90만원까지 지원
완료했다.

거리 노숙인 및 노숙인 시설 ‘디딤밭’
에 대해서는 생수지급, 긴급식량 도시락
제공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읍면동
현장대응반 활동을 강화하여 노숙인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유
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는 여름철 건
강에 더욱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
다”고 전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여수시, 도시재생사업 종료지구 사후활용 성공 솔루션 구축

여수시가 사업이 종료된 도시재생사업
지구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거점시설 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문수 뉴딜사업 지구’는
여수시 최초로 지난 5월 국토부로부터 마
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관협)으
로 최종 승인받아 카페, 식당 등 마을거점
시설 운영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려 뉴딜사업 지구’도 발기인(대표)
모집, 정관제정 등을 완료하고 마을 총회
를 개최하는 등 연말을 목표로 마관협 설
립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또한, 사업이 종료된 광림·충무·종화지
구(새뜰마을지구), 문수지구(뉴딜사업
지구) 주민협의체 및 협동조합에서는 마
을 거점시설 활성화를 위한 주민주도의
열린 토론과 협의를 추진 중이다.

여수시는 그 결과물인 2~3개의 활성화
과제를 중심으로 7월 중에는 사후관리 관
련 전문가를 초빙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운영·관리방법을
도시재생사업 종료지구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을카페와 마을식당, 마을점
빵 등 거점공간의 시그니처 메뉴 및 마을

BI·CI 개발, 회계·고객응대 서비스 실무
운영 능력을 함양하고 전통장류 비법 전
수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성
공적으로 마쳤다.

이에 따라 종화지구 주민협의체(위원
장 조덕화)에서는 마을카페를 8월 중 오
ponsored 예정이며, 광림새뜰마을공동체 협
동조합(위원장 임사규)에서는 전문가의
교육과 검증을 거친 ‘광림새뜰마을 전통
장류 표준 레시피 북’을 발간해 잊히고사
라져가는 전통장류 장인의 비법을 전수
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개장 19주년 기념행사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이 지난 6일 개장
19주년을 맞아 ‘새로운 미래로’의 도약을
알렸다.

이날 토요시장 개장 기념식에는 장흥
군수, 국회의원, 시장상인 등 지역민 200
여명이 참석했다.

식전 축하공연으로 시작된 기념행사는
기념식, 플리마켓, 리마인드 전시회, 경
품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은 주 5일 근무제
가 시작된 2005년 지역특산물과 관광자
원을 연계한 전국 최초 문화관광형 시장
으로 개장했다. 이후 2015년 ‘한국관광
의 별’, 2016년 ‘한국관광 100선’ 2023
년에는 ‘문화관광형 특성화사업’에 선정
되는 등 명성을 높이고 있다.

토요시장은 소비자 트렌드에 부응하는
새로운 품목개발, 젊은 상인육성, 진철마
인드 향상 등 경쟁력 확보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토요시장 진입교량
예양교 개설, 칠거리 골목 르네상스사업
등 지속적인 주변 환경을 개선과 차별화
된 프로그램 개발로 전국 최고의 ‘명품시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흥=김전환 기자